

나 에겐 “불”하면 혼자 얼굴을 붉히며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3년전.

어느 봄날 일요일 아침이었다.

마치 모짜르트의 음악과도 같은 맑고 환한 햇살을 느끼며 느지감치 일어났다.

남편과 딸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배달된 우유를 집어오기 위해 현관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불이야.”

바로 아래층 아줌마 목소리였다.

나는 남편과 꼬맹이를 급히 깨우고 뛰어 내려갔다. 아래층 아줌마는 갓난아기를 담요에 싸안고 나와 발을 구르고 있었다. 아기의 머리는 젖은 채 였다. 이집

저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집 내부에서는 전혀 연기도 불길도 보이지 않았다.

“아기 목욕시키는데 갑자기 뒤편이 흰해지면서 쉬익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밖에 있는 가스통에서 불이 붙어 타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기 아빠두 일찍 낚시가고 있는데 어쩌면 좋지요?” 아주머니는 울상이었다. 갑자기 목욕하다 담요에 싸안겨져 나온 아기는 까만 눈만 깜박거렸다. 입술이 파랗다.

모두들 건물 뒤로 돌아갔다.

모인 사람들로 연립주택 뒤 공터는 금새 시장같이 되었지만 누구하나 달려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곽 주 호
(충남 천안시 쌍용동)

그도 그럴 것이 가스통에서는 무서운 소리를 내며 세차세 불길을 위로 뿜어내고 있었으니 말이다.

모두들 이사온지 얼마 안되는 이 3층짜리 인립주택엔 흔한 소화기하나 갖추고 있지를 못했다.

또 그 불을 소화기로 꺼야 하는건지 물을 부어야 하는건지도 모르니 모두 구경만 하고 있었다. 마치 가스통 가까이 가면 그것이 곧 폭발이라도 하는 양.

“순천향 병원에 가서 소화기를 빌려와.” 누군가 소리쳤다. 어떤 총각 하나가 막 뛰어갔다.

총각이 애들 장난감 같은 소화기를 들고 혈레벌떡 왔다.

일요일이라 당직자 밖에 없어 못빌려 준다고 해서 앞에 붙은 학교에서 빌려왔다는 그 소화기는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형체만 갖춘 것이었다.

어찌됐든 모인 사람들은 좋아했다.

그 아줌마와 바로 위층의 나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사람 저사람 달려 들어 빼고 누르고 했지만 소화기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 주지 않았다.

그저 소화기 형체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동안 가스가지고 말썽 부린적 있어요?” 내가 물었다. “어저께요. 가스가 이상해서 가스집에 연락했었지요.” “그래서 왔다 갔어요?”

“네. 와서 보더니 이상없다고 그냥 갔어요.”

아줌마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사색이된 얼굴이었다.

“가스집에 다시 연락해 보세요.”

아기를 나에게 맡기고 아줌마는 앞동으로 달음질쳤다. 가스를 들여 놓은지가 얼마 안된다고 하니 그 통의 가스가 다 타야 불이 꺼지는 것이었다.

다행히 가스통이 놓인 자리가 시멘트 건물의 뒷부분이고 아주 가까이엔 탈 물건이 없었지만 불길이 바람따라 방향만 약간 바뀌면 창가에 너풀대는 커튼에 영낙없이 불을 판이었다.

나는 아줌마가 원망스럽기 시작했다.

비록 이 집이 전세 500만원의 임대주택이지만 나는 단칸 사글세방을 8년 살고 난 후 겨우 옮긴 13평짜리 소중한 집이었다. 실평수야 10여평 정도 밖에 안되는 달팽이 같은 집이었지만 나에게겐 우주와 다를 바 없었다.

단칸 셋방.

꼬맹이 때문에 낮에도 방문을 잠그고 다니질 못했다. 어느날 밤. 분명 무언가 다른 생물이 방안을 돌아 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쥐였다.

쌀자루를 벌렸다가 쥐들이 짹짹대며 입을 벌리는 바람에 뒤로 넘어 질뻔했던 일. 고양이로 길렀더니 쥐를 입에 물고 방안까지 들어왔던 일.

쥐가 잘 다니는 길에 놓으면 쥐가 붙는다 해서 덮을 놓았더니 목숨은 붙어 있는데 얼마나 불부림을 쳤는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쥐.

쥐 노이로제에 걸려 쥐와 함께 살았대도 지나치지 않을 그 8년의 사글세방살이가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비켜요, 비켜.” 그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다. 가스집에서 온 그 사람은 전혀 두려운 표정없이 불길기 치솟는 곳으로 갔다. 금새 불이 꺼졌다.

마술사같은 아저씨는 투덜땀다.

“통위의 밸브만 잠그면 되는 걸 가지고” 나는 왜 통위에서 불이 솟는지를 몰랐었다. 가스통에서 부연으로 연결된 호스가 끊어졌던 것이다.

모두들 안심하면서도 너무 몰라서 아무 조치도 못했던 무지로 조금은 미숙한 얼굴들로 뽀뽀이 흩어졌다. “호스가 그 모양이 되도록 모르다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초조했던 시간을 보상이나 받으려는 듯이 나는 투덜거리며 2층으로 올라왔다.

“누가 성냥불이나 담배꽂초를 버렸나? 호스가 왜 끊어져?”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방 창문으로 아래를 내다보니 아직도 몇몇 아저씨가 수 십분 동안 불에 의해 칠도 벗겨지고 험하게 되어버린 뒷벽의 주변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저씨가 말했다.

“성냥불로 호스가 끊어지나?”

“그게 아니구 저 얘기엄마가 비닐로 가스통 위를 씌워 놨다잖아요. 그래두 모르겠어?”

나는 불현듯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성냥불.”

나는 황급히 보일러실이 있는 것으로 가서 조그만 보일러실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뒤통수를 세차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범인은 바로 나였다. 나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뛰다시피 안방으로 와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좀 천천히 차근차근 말해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연탄불이 꺼졌드라고요.



그래서 번개탄을 연탄집게로 집어 보일러실 밖으로 꺼내 불을 붙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번개탄에 불을 붙이면 밑부분에 있는 것이 세차게 불이 붙으며 여기저기 불뿔이 튀거든요. 그것이 아래로 떨어진 것이지요.” 그 불뿔이 비닐에 붙어 타고 호스가 타서 끊어지고 가스는 분출하고 무슨 수학 방정식 풀어지듯 문제는 풀렸다.

“큰일 날뻔 했군. 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다른 집 불태운 것 다 물어줘야 되고 소방차가 한번 오면 거기 드는 비용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물론 쇠고랑도 차야 되구.”

비난조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실수로 인해 사람도 죽이고 또 실수로 인해 불도 낸다는 “과실”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런 것은 모두 남의 얘기였던 것이다. 못난 사람들의 일로만

실수로 인해 사람도 죽이고 또 실수로 인해 불도 낸다는
 “과실”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런 것은 모두 남의 얘기였다.
 못한 사람들의 일로만 여겼었다. ‘부주의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이것이 내 생각이었다.

여겼었다. ‘부주의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이것이 내 생각이었다.

소설 제목처럼 ‘오만과 편견’ 속에서만 살았던 것이다. 다시 일어나 보일러실로 갔다.

정확히 내가 손내밀고 불붙인 그 바로 밑으로 아래집 가스통이 서 있었다.

이 집 저 집 사람들이 다 나를 눈흘기며 지나가고 약다구니로 달려들어 이물건 저물건 들고 나가고 나는 경찰서로 끌려와 수감차고 감옥에 앉아 있는 그런 생각들로 그날 하루가 갔다.

변변치 못한 여자라고 속으로 욕했을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

나나 남편외에 그 사실을 혹시나 누가 아는게 아닐까 하는 불안으로 몇달이 지났다. 절대 그 이야기는 입밖으로 내지를 않았다.

어느날 나는 용기있게 그 이야기를 나의 반 학생들에게 했다.

나로선 대단한 용기였다. 조금 짐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처음 시작을 하고 나니 다음은 훨씬 쉬웠다. 수업들어가는 반마다 그 이야기를 해주며 나는 마음의 짐을 조금씩 조금씩 털어 나갔다.

하지만 가장 큰 고역은 그 아줌마였다.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될텐데.”

그러던 어느날 기회가 찾아왔다.

토요일 수업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는 길이었다. 아래집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어져 있었다.

울음이 너무 크고 오래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염마가 없는게 분명했다.

잠시 생각해보니 방법이 있었다.

관리실에 두고 있는 한벌씩의 비상열쇠가 생각났다. 가서 사정얘기를 하고 열쇠를 가져와 현관문을 열었다. 나는 아기를 안아 달랬다. 내가 직장을 나가는 턱에 아래집 아기 한번 제대로 안아 보지도 못했던 터라

아기는 낮이선지 더욱 세게 우는 것이 아닌가? 난감한 심정으로 이리저리 아기를 달래는데 머리에 비닐모자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아줌마가 나타났다. 아기를 재워놓고 미장원에 갔던 것이다. 미안해하며 아줌마는 콜라 두잔을 가져왔다. 바로 이 기회였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되었다.

몇달전의 그 불 이야기를 진정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했다. “그랬었군요.” 얘기를 듣고 난 아줌마의 표정은 별로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었고 또 그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을 바꾸었다.

“다 지난 일인데요 뭘.”

“하여튼 이젠 가슴이 후련하네요.”

그 뒤 나는 좀 색다른 음식을 했다하면 부지런히 가지고 날랐다.

덕분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자칫하면 커질 뻔 했던 사건은 나에게 여러가지로 생각케 했다.

우선 냄새와 연기가 싫다고 밖으로 내어 번개탄을 붙인 내 행동.

가스통위에 비닐을 뒤집어 씌웠든 아줌마. 가스에 대한 무지로 잠그기만 하면 되는 것을 아무도 못했던 것.

물론 나는 그뒤 남편이 했던 얘기가 틀린 것도 알았다. 소방차가 출동한다해서 그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아줌마도 나도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 생생한 기억 때문에 불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다.

불기가 있는 연탄재를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든가 하는 행동은 절대 하고 있지 않다. 이번엔 진짜 두 손에 은으로 된 팔찌를 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그 아줌마와 식구들에게 기쁘고 좋은 날이 이어지기를 빌며 다시는 그와 같은 부주의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나 스스로에게 다짐해 본다. ☺